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유교사상이 기본이 되는 신분간의 질서와 성의 유별은, 주거내에서는 신분제도로 인한 계급의 분화와 남녀의 內外法으로 間의 분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채가 분화되고 당연히 마당은 채와 더불어 구성되게 되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채의 분화로 이루어진 마당의 특성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축의 원리

전통주거에서 가장 강한 축을 갖는 것은 마당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안마당의 중심축을 기준으로하여 보면 하나의 중심띠를 갖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보면 가운데의 굵은 두께의 폭을 갖는 안마당의 축이 설정되어진다. 이 축의 크기는 보통 3~5間的 물리적인 치수로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내부의 마당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대청뒤의 마당과 연결되는 그 결합성이 바로 마당이 갖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 축은 내부 공간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마당과 그 마당의 저 너편까지를 함께 이어주는 강한 흡입력을 갖는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구성원리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마당을 향한 외,내향성의 특성원리는 그대로 작용하면서 각방향이 갖는 공간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중앙의 안마당을 기준으로 하여, 동북으로 사당을 배치하고 사랑마당은 동남에 그리고 서북에 안채의 부속마당인 옆마당 등을 위치시킨다.

기본적인 안마당의 축은 주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며 이 띠를 중심으로 하여 각채가 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안마당에서부터 시작되는 분화의 논리는 그 축을 가지는 마당이 당당하게 그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요소는 비어있는 것에서 출발하듯이 마당의 빈공간도 虛의 공간을 갖음으로서 시작된다. 공간은 인간에게 움직임의 자유를 주고 또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정신을 지배¹⁷⁾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마당공간이 갖고 있는 원리는 주거생활 속에서 깊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인 안마당의 축은 주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며 이 띠를 중심으로 하여 각채가 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안마당에서부터 시작되는 분화의 논리는 그 축을 가지는 마당이 당당하게 그 힘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요소는 비어있는 것에서 출발하듯이 마당의 빈공간도 虛의 공간을 갖음으로서 시작된다. 공간은 인간에게 움직임의 자유를 주고 또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정신을 지배¹⁷⁾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마당공간이 갖고 있는 원리는 주거생활 속에서 깊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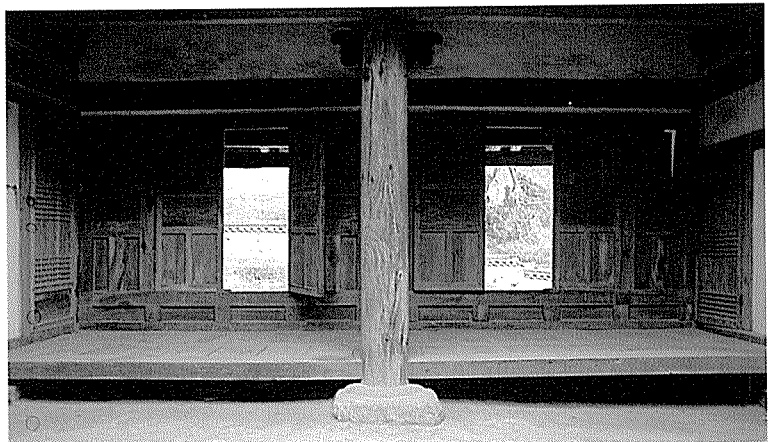
17) B. Zevi, "Architecture as Space", 1993, 227쪽.
(崔宗鉉 外 1人 譯)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 (2)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1.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2. 마당의 개념
 - 2-1. 마당의 정의
 - 2-2. 채와 마당의 분화
 - 2-3. 마당의 분류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 4-1. 마당의 유형분석
 - 4-2. 마당의 형태원리
 - 4-3. 마당의 규모
- 맺음말



香壇의 열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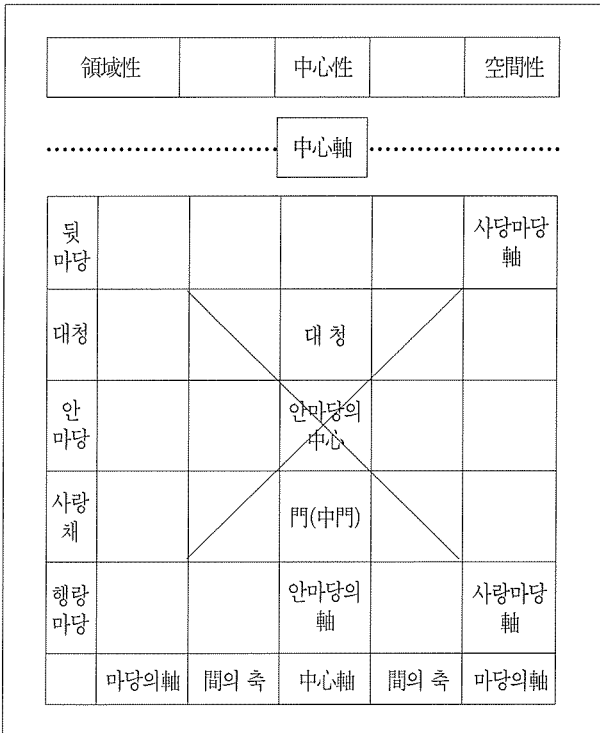


그림 3-1. 마당 공간 구성의 축

마당의 중심에서 시작된 “대청-마당-문(중문)”¹⁸⁾ 이라는 일정한 축은 채와 더불어서 口자형 평면의 마당을 구성하여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 및 채(棟)와 채간의 규율적(規律的)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의 설정은 몸체의 경우에 4가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체계는 안마당을 기준으로 하여 뒷마당, 사랑마당, 중간마당 등이 나타나는 축이다.

안마당에서 시작하는 일직선 축을 살펴보면 추사고택과 같은 경우는 안마당+대청+뒷마당이 일치되는 축을 보이고 있으며, 향단은 안마당+사랑대청+사랑마당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배치의 기본은 물론 풍수사상에 의한 평면형(月자형, 日자형, 用자형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3영역으로 보면 그 중심축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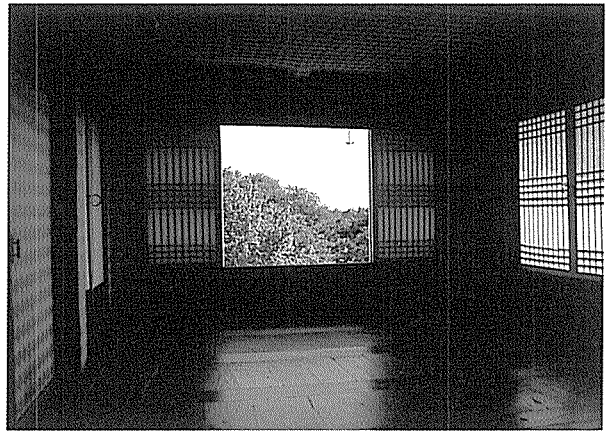
유형1의 열린형은 안마당에서 뒷마당까지의 일직선상



그림 3-2. 마당축의 연결로 본 채(棟)와 마당



추사고택의 안마당. 안마당이 중심이 된다.



윤증고택 사랑채 누마루에서 본 바깥마당

의 축에 맞춘 형으로서 정재영가옥, 관가정, 김동수가옥, 추사고택, 윤증고택, 윤선도가옥 등이 있으며 전통가옥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축을 만드는 것이 마당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채가 우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강한 축을 이루는 3영역을 연결하면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2는 안채와 안대청이 함께 구성된 형으로서 충효당, 양진당, 독락당, 박황가옥, 운조루, 김기응 가옥, 船橋莊, 演慶堂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채 때문에 대청의 열린폭은 유형1보다는 덜 개방적이지만 열린 깊이로 보면 그 가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유형3은 香壇의 경우로서 사랑마당이 뒷마당 대신 자리잡고 있어서 유형1의 뒷마당이 바로 자연과 합일된다는 점과 다르다. 유형4는 의성김씨종가택의 중간마당이 생기는 부분이다.

(2) 공간의 연속성

전통마당의 흐름은 매우 완벽한 질서로 이루어진다. 그 흐름의 진행은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전체의 틀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은 공간의 전체를 묶는 질서의 연속성이며 단계별로 이어지는 차분한 마당공간의 이어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기응 가옥의 공간 특성원리를 살펴보면, 바깥마당을 통해서 대문을 진입하게 되면 이 주택의 공간질서의 예감은 커다란 행랑마당의 지점에서 전체의 윤곽을 파

18) 張善柱, “朝鮮時代 上流주택에 있어서 間과 空間構成” 충북대 석론, 1994.

약할 수 있는 것에 있다. 그러한 예측은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의 범위를 지각할 수 있다는 추측이 된다. 이제 마당에서 중문으로 향하게 되고 중문체의 중문마당에 다다른다. 이곳의 완충적인 공간 성격은 중문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안채를 보호함에 시각적인 차단은 물론 심리적인 遮蔽를 가져온다. 이곳을 거쳐서 진입하게 되면 공간의 중심이며 전체마당의 핵이 되는 안마당에 도달한다.

안채로 둘러 쌓인 □자형의 안마당은 가옥의 중심부를 상징적으로, 형태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당의 중심을 갖고 있다. 뒷마당은 안대청과 연결되어 시각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주면서 대청의 열린공간과 안마당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 가옥은 주거공간의 특성속에, 연속적인 질서를 갖는 독특한 흐름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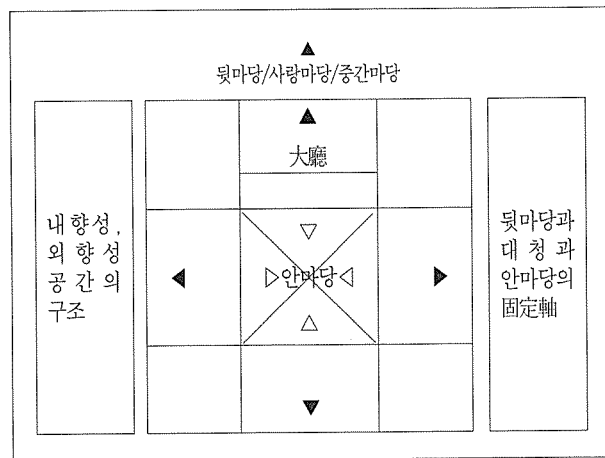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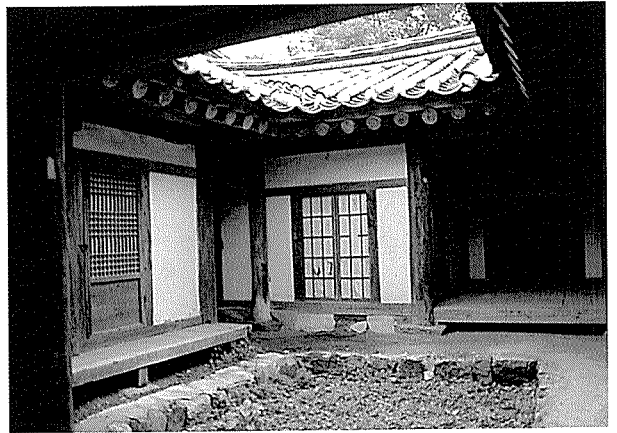


그림 3-3. 마당을 중심으로 한 內·外向性

(3) 커를 갖는 공간

커를 소유하는 전통 주거의 공간은 “공간 속의 또다른 공간” “공간의 이중적코드” “調節空間”으로 불려질 수 있다. 분명히 전통주거 속에는 한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空間의 空間性)을 소유하고 있다. 안마당과 뒷마당은 각각 안채라는 커를 가지고 있다. 즉 앞뒤의 마당이 하나의 안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안채는 두 개의 커(안마당에 면한 한커와 뒷마당에 면한 또다른 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형성은 마당이란 외부공간이 내부공간의 성격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통주거만의 독특한 구성방법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유기적 공간성의 틀을 갖는다. 커를 소유한 안채의 대청은 앞뒤로 벗겨질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안채의 내부공간은 안마당과 뒷마당 사이의 공간성을 소유하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안마당은 단순히 외부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안채 중에서 퇴에 해당하는 반내부(반외부)공간과 대청의 열린공간은 앞 뒤의 마당을 내부로 끌어들이, 커 사이에서의 안채는 두마당과 일체가 된다. 이러한 커의 공간은 공간내



향단의 안마당. 가장 작은 마당이지만 열린 부분이 있다.

에서 반복되면서 전체 마당의 구성을 이끌어 간다.

이런 커의 공간은 조절의 능력을 갖고 있다. 안마당에서 뒷마당을 바라보면 안채라는 커가 마당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중적 코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는 향단의 안마당에서 사랑마당 사이의 열린공간(사랑채라는 커)으로서 마당의 좁은 공간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된다. 작은 공간에서 큰공간으로 확대되어 가는 휘모리 공간이 되는 심리적인 공간성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간성을 갖게하는 조절공간이다.

(4) 이원성(二元性)의 다양성공간

전통주거공간은 내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외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이원성¹⁹⁾ 을 가지고 있는 탄력적인 매력의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안마당의 기능에는 마당이라는 옥외공간에서 해야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이 단순히 통로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가사를 위한 공간인 까닭이다.

(5) 자연합일 조화성 공간

위에서 살펴본 공간 연속성의 흐름이나 커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자연과 하나로 되는 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는 전통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연과의 융합으로서 외부의 요소를 실내공간에 끌어 들이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을 조망하는 방법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들어올개의 분합문으로 외부의 자연을 조망하는 이치이기도 하다.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마당공간이 구성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채가 분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一자, 7자, ㄷ자, □자의 채의 유형이 채(棟)와 그리고 담장과 만나는 부분이 “□”자형으로 되는 것으로서 독특한 마당 형상인 것이다.

특히 몸체에 속한 안마당은, 유형이 민가형, 경기형이나 또는 한일자집, 곱은자집²⁰⁾의 평면구성에 관계없이 대지의 가운데에 형성되는 마당의 중심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안마당의 중심성은 민가와 반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마당의 한 복판에 “□”자형태의 배치를 갖게되는 것이다.

(1) 여섯마당의 분류

19)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보진재, 1990, 20쪽.

20) 김홍식, “韓國의 民家(1)”, 꾸림44호,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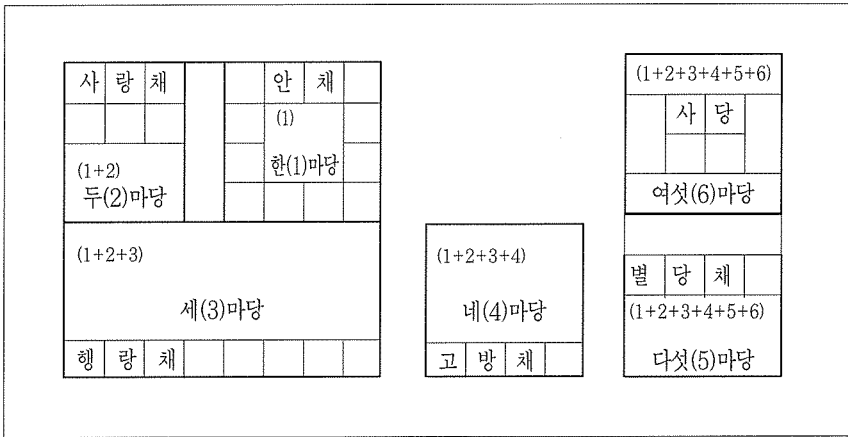


그림 3-4. 여섯마당의 구성원리

마당은 채(棟)의 분화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요 3채(안채, 사랑채, 행랑채)에 속한 각마당과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로 분화되는 마당을 합하여 모두 “여섯(6)마당”으로 분류된다. 즉 여섯채의 분화에 속한 여섯개의 마당이 주요마당이 되는 것이며 그외의 옆마당, 셋마당, 뒷마당 등은 6채의 각채속에 포함되는 부속마당이다. 전통주거속에 나타나는 모든 공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마당과 부마당의 위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도 느끼게 되었다.

마당은 자연스럽게 채와 동반되는 것이지만 담장에 의해서-사잇담과 사잇담의 공간-생기는 작은 마당(또는 통로) 또한 놓쳐서는 안되는 소중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공간의 필요원인은 물론이지만 그 크기에서 나타나는 적절한 스케일의 감각이다. 어느정도의 규모가 알맞은 크기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분석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민가의 경우에는 안채에 따른 안마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또한 사랑채, 헛간채 및 부속사 등으로 “ㄱ”자 형태의 채가 만들어져도 역시 마당은 “口”자의 한마당이 대부분이다. 반가의 마당에서는 보통 세(3)마당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몸채가 3분화되는 과정중에서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당의 구성원리는 반드시 채에 의한 마당의 분화에 따라서 개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각채에 의한 마당의 원리를 살펴보면 채에 의한 마당이 한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다.

마당의 구성원리는 <그림 3-4>와 같이 여섯마당으로 구분이 되어 그 내용을 달리한다. 즉 한마당은 한 몸체인 안채와 하나의 마당으로 되거나, 사랑채가 분화되기 전인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된 상태에서 채와 그리고 하나의 마당만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음 두마당은 사랑채(또는 헛간채)가 분화되어 안채와 사랑채(헛간채)가 별도로 나누어져 2개의 마당이 있는 것이며, 세마당은 행랑채를 포함하여 주요 3채의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마당, 다섯마당, 여섯마당으로 채와 동반되어 분화된다. 마당의 구성원리 분석은 채가 분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당은 채로 인하여 출발되며 그 채안에 마당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당의 구성원리는 채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마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1)마당,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두(2)마당, 그리고 셋으로 되는 것은 세(3)마당, 그다음 네(4)마당, 다섯(5)마당, 여섯(6)마당으로 나누었다.

채와 마당의 유기적인 구성은 그 채에 따서 마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형의 한마당에서 여섯마당까지는 대단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여섯마당 형

한국전통주거 마당의 구성형태는 종합적으로 나누어 보면 모두 여섯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특히 한마당, 세마당, 네마당, 다섯마당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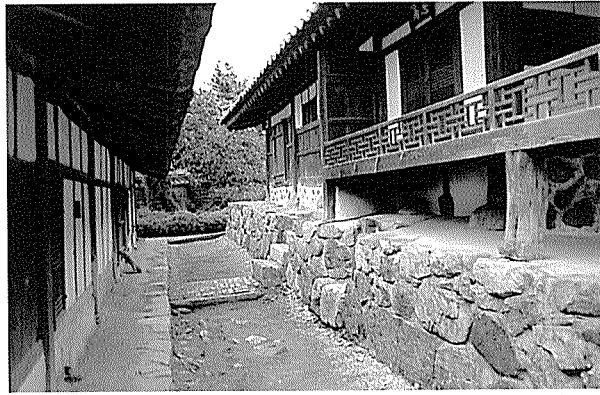


향단의 안채와 행랑채의 사잇공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생기도 하였지만 통로로서의 기능과 함께 연속된 마당이라고 볼수있다.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은 또다른 形을 소유하고 있어서 2가지 또는 4가지 형식으로 다시 세분하게 된다. 한마당의 3가지 유형은 채의 구성상 안채만 있는

표 3-1. 채(棟)와 마당구성에 의한 여섯(6)마당의 분류

여섯마당形	구성원리		마당의 구성	채의 구성
	기본형	1형		
한(1)마당	기본형		안마당	안채
	1형		안마당	안채(+사랑채와 헛간채)
	2형		안마당	안채+헛간채
	3형		안마당	안채+사랑채
두(2)마당	기본형		안마당+사랑마당	안채+사랑채
	1형		안마당+행랑마당	안채+헛간채(행랑채)
세(3)마당	기본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
	1형		안마당+사랑마당+사당마당	안채+사랑채+사당채
네(4)마당	기본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
	1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별당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
	2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정자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정자
	3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별당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사당
다섯(5)마당	기본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별당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별당
	1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사당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사당
	2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별당마당+사당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사당
여섯(6)마당	기본형		안마당+사랑마당+행랑마당+고방마당+별당마당+사당마당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별당채+사당



손동만 가옥의 행랑채와 안채의 사이공간



선병국가옥의 사랑채에서 본 사랑마당



손동만가옥의 중문에서 본 뒷마당

기본형과 분화를 통하여 채가 부속채 또는 사랑채로 증가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다섯마당은 기본형에서 별당및 사당마당의 유무에 의해서 다른 형식을 갖는 것이다.

물론 마당은 기능의 엄격한 分化에 의해서 사랑채의 옆이나 뒤를 포함하면 6개이상의 마당이 생길 수 있지만, 좌우 측면과 후면의 마당은 그 본채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곽간채의 곽간마당도 마당의 종류에서는 그 성격이 행랑마당과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형태원리에는 행랑마당의 범주속에 삽입하였다. 기준이 되는 6마당의 구분은 3몸채를 우선하여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과 곽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으로 나누었다.

3-3. 채(棟)와 마당의 구성원리

마당은 구성원리에서 나타났듯이 여섯마당의 유형이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은 여섯가지 채(안채, 사랑채, 행랑채, 곽방채, 별당채, 사당)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당으로 여섯 개의 주마당에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마당에는 3개, 사랑마당에는 5개, 행랑마당에는 3개의 부속마당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마당의 역할이 주마당과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본연의 기능을 갖고서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채와 마당의 원리는 6채의 영역속에 11개로 분화된 독립된 채가 있으며, 이 채와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16마당의 각기능을 갖는 것이다. 즉 행랑마당에서 사당마당까지 열여섯개소로 정한 "16마당"을 본 연구의 마당의 범위로서 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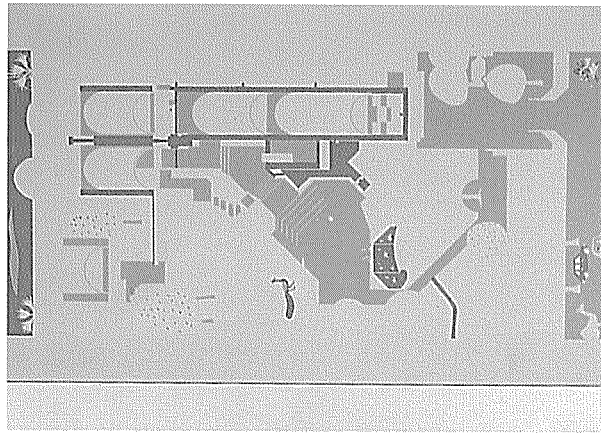
여섯영역의 주마당은 7개소(곽간마당,중문마당,사랑옆마당,사랑뒷마당,셋마당,옆마당,뒷마당)의 부속마당을 가지며 그 연결성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채와의 마당구성은 6개소의 주요채와 4개(곽간채,중문채,안사랑채,반빗간)의 부속채와 결합되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표 3-2> 6채(棟)와 마당영역(주택內 마당)의 관련성

채(棟)	마당형태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	해당마당수 (개소)	비율 (100%)		
				행랑마당	곽간마당	중문마당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후정	별당마당				정자	
행랑채	1	01	행랑채	●	●	●	○													3.5	8.43	
		02	곽간채	●	●	●															3.0	7.23
		03	중문채	●	●	●							○								3.5	8.43
사랑채	2	04	사랑채	○			●	●	●	●	●	○					○			6.5	15.66	
		05	안사랑채				●	●	●		●							○			4.5	10.84
안채	3	06	안채			●						●	●	●	●	○				5.5	13.25	
		07	반빗간										●	●	●		○				3.5	8.43
고방채	4	08	고방채	●	●	●											●			4.5	10.84	
별당채	5	09	별당				○										●	●		2.5	6.02	
		10	정자				○											●	●	2.5	6.02	
사당채	6	11	사당				○	○										●	2.0	4.82		
계	6	11		4.5	4.0	5.0	3.5	2.5	2.5	1.0	2.0	3.5	2.0	2.0	1.0	2.0	3.0	2.0	1.0	41.5	100	



관기정의 안마당에서 본 뒷마당의 열린공간



인도의 건축가 도쉬의 스튜디오를 표현한 외부공간 구성도

하고 있다.

채에 따른 마당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랑채가 갖는 각각의 마당과의 연관비율이 16.0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사당의 공간은 4.94%가 되어 마당간의 관련성에는 제일 낮은 비율이다. 안채는 마당의 중심이 되긴 하지만 13.58%로서 사랑채 다음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딧간은 독립된 채로서 구성되며 연경당에서 보여주는 마당 공간은 안채

의 뒤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마당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마당의 후정과 사랑마당의 정원은 각각의 뒷마당과 사랑마당 속에 그 경계를 나타내면서 고유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당 속의 공간을 점하고 있다.

표 3-3. 마당의 기능과 현대적 발전 유출가능성

마당종류	구분	고유 기능	공간의 구분		마 발 전 연 의 부	행 위		
			전통적마당	현대적마당		현 대	과 거	
주택 외 마당	1	바깥마당	영역의 認知性, 규모 판단의 場所性, 境界의 출발점	외부마당	단지내마당	●	파티, 집회 모임 타작, 널뛰기, 윷판, 무당굿, 마당밧기, 농악, 탈춤, 줄타기	
	1	행랑마당	옥외작업공간, 연결동 선, 완충역할, 수납공 간, 다목적공간	행랑채	없음	없음	장작패기, 나무더미 추리기, 농기구손질, 타작, 소먹일풀말리 기, 쇠죽끓이기	
	2	곳간마당	곳간채의 곡식저장	곳간채	〃	〃	곡식말리기, 고추다듬 기, 허드렛일, 떡판치 기	
	3	중문마당	안채보호공간, 시선차 단공간매개공간	중문채	〃	○	〃	행랑마당의 역할 일부 수용
	4	사랑마당	절객, 의식, 집안의 대소사	사랑채	거실앞	●	정원으로 바뀜	혼례식
	5	사랑옆마당						
	6	사랑뒷마당						
	7	샛마당	완충공간, 통로	안채, 사랑채사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	정원	造園공간	사랑채	거실앞	●	휴식, 감상	휴식, 감상
	9	안마당	통로및 동선, 작업 통풍 채광, 가사공간, 폐쇄적 공간, 의식집회	안채	〃	●	점차마당 없음	무당굿, 집안의 대소사, 빨래
	10	옆마당	가사공간, 통로	〃	주방옆, 뒤	●	장독대	빨래
	11	뒷마당	가사공간, 접근어려움, 자연과의 융합, 안마당 과의 열린공간	〃	〃	●	장독대	고추다듬기
	12	後庭	과실수, 휴식처	안채와 사랑채	거실부근	○	정원	사색, 휴식, 감상
	13	庫房마당	수장공간	고방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4	別堂마당	조원공간, 사랑채와 精舍기능	별당	사랑방앞	○	정원	接客, 讀書, 觀賞
	15	亭子마당	수양공간	정자	〃	○	정원	休息, 思索
16	祠堂마당	家廟空間	사당	없음	없음	없음	祭祀	